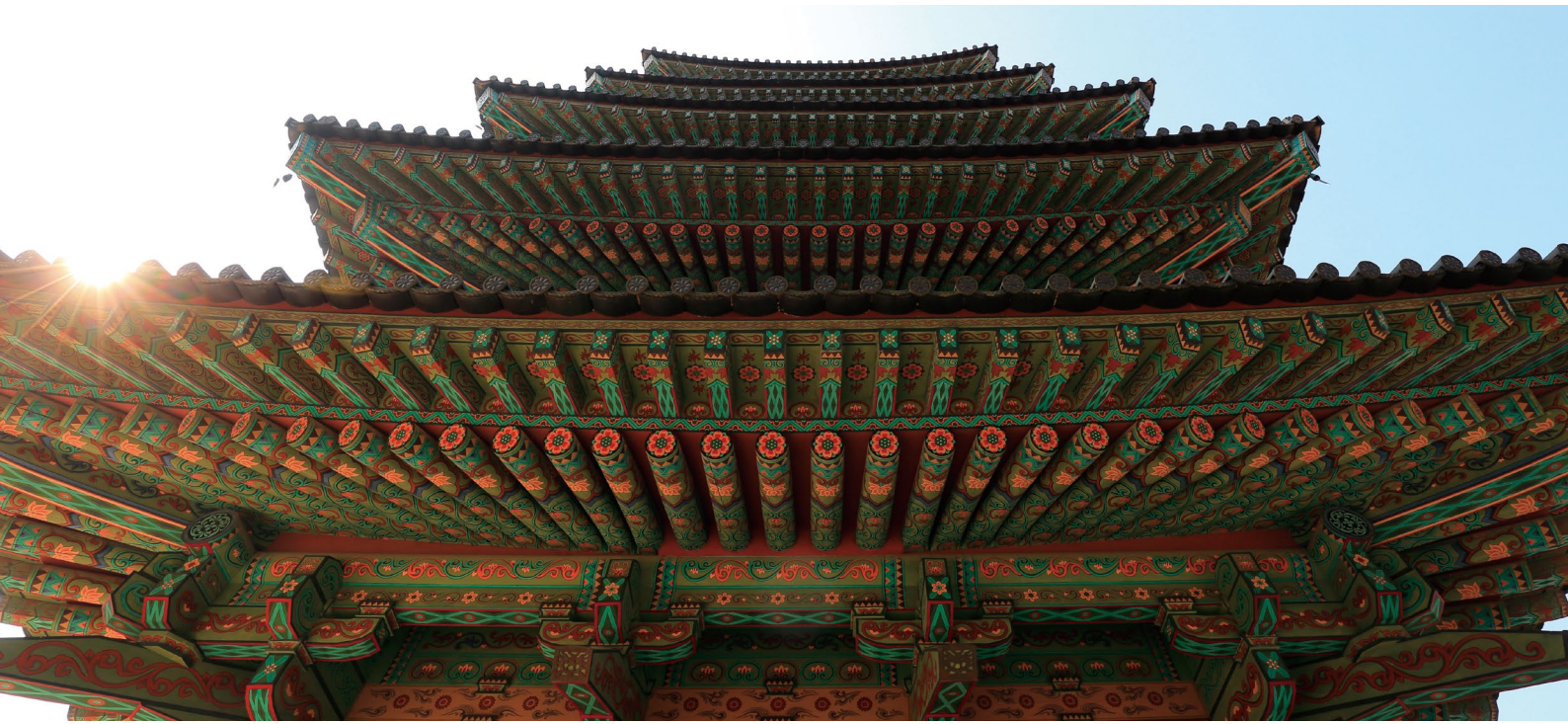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

‘백제역사유적지구’ 스마트시티 특화단지로 조성하다

공주시가 부여군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2020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추진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기성 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스마트시티 우수사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주시는 2019년 국비 2억 2,500만원을 지원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2020년에는 사업비 40억원(국비 20억원) 규모로 본격적인 스마트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작성 : 충청남도 공주시



01 스마트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을 위한 첫 걸음

공주시와 부여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스마트 서비스를 접목해 ‘스마트 세계문화유산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선 공주시는 주민이 사업추진의 전 과정에 중심적으로 참여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공주시와 부여군은 시민참여단 62명(공주시 36명, 부여군 26명)을 모집하여 발대식을 가졌다. 시민참여단은 스스로 일상의 문제를 찾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리빙랩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02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첫 번째

‘즐거유 서비스’는 맞춤형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는 AI 챗봇 음성 서비스, 증강현실(AR)을 이용해 고도(古都)를 체험하게 해주는 ‘백제타임머신’서비스, 미션형 관광콘텐츠 수행이 가능한 그룹형 체험학습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

‘나눠유 서비스’는 관광객 물품 보관을 위한 ‘스마트 보관함’설치와, 지역의 물품, 지식, 공간 등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공유하는 플랫폼 서비스인 ‘백제 공유터’구축을 주 내용으로 한다.

세 번째

‘타박유 서비스’는 각종 센서를 통해 관광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인 ‘백제 쌍쌍’도입과 주차장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특정 주차면을 예약할 수 있는 스마트주차장 구축으로 교통 서비스도 안내한다.

네 번째

‘기반시설구축 서비스’는 위의 즐거유, 나눠유, 타박유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서비스다. 이를 통해 무료 와이파이존, 미디어 사이니지, 데이터 허브, 문화관광형 디지털트윈 서비스 등 도시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제공하는 서비스를 마련한다.

03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공주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공주시민의 스마트시티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단계별 추진전략, 기반시설 조성과 관리·운영 기준마련,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발굴 등 성공적인 공주형 스마트 모델 창출을 위해 현재 ‘공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 관제와 운영에 기본이 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공주시와 부여군은 ‘스마트백제’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며, 첨단과 전통이 어우러진 오래된 미래도시 공주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